

공공미술2.0 사업 재공모 심의평

공공미술2.0 사업 재공모에는 총 22개가 응모하여 그 중 1차 심의를 통해 9개가 선정되었다. 공공미술2.0의 취지와 맞는 사업이 없었던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했던 1차 공모와는 달리, 기획의 수준이 좋아졌으며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1차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차 심의를 진행한 결과 4개 사업이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총 2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들의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 것인데, 선정된 사업들이 그렇지 못한 사업들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공공미술2.0 사업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과 기획의 내용적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재공모에 응한 사업들은 최초 공모에 비하여 수준에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공공미술2.0 사업의 취지에 보다 근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대상지역 현황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고 현실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작품 및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 완성도가 요구되었다.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기획자, 작가, 자치단체, 주민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적 구성의 역할 및 참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획 또한 중요하다. 선정된 사업에 관한 심사평은 아래와 같다(접수번호순).

‘양립성장형 공공미술프로젝트(광주광역시)’는 지역성에 기반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존 사업 및 대상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실현가능성을 기대하도록 하였다. ‘텃밭 인 켄치: 문화적 현상으로의 텃밭 가꾸기(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자원 순환 및 이웃과의 관계 등 시의적절한 주제에 예술이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으로 기존의 텃밭 또는 생태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확보를 통하여 공공미술2.0 사업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였다. ‘즐거운 나의 집 ArtParTment(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사업담당자가 기획자로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예술의 새로운 형태로서, 리사이클과 소금밭 등 시대적 요구와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개념을 주민참여프로그램 및 공

공기관에 설치하게 될 작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진화하는 공공미술 : 지식의 공유와 경험의 확장(안양문화예술재단)'은 공유와 확장이라는 키워드와 충실한 기획내용을 통하여 공공미술의 진행형으로서의 진화를 예측하게 하였으며, 앞으로 기획의 전개를 통하여 공공미술2.0 사업과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